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7. 4. 25.(화) 총 8매(본문 2, 참고 6)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당 자	• 과장 허만옥, 팀장 윤상훈, 주무관 박병일 • ☎ (044) 200-6181, 6184
보 도 일 시		2017년 4월 2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생사고락 같이한 극지인, 한 자리 모여 비전 선포식 가진다

- 해수부, 26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개최 -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문명 세계와 단절된 세상의 끝, 극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남극 월동대원과 아라온호 승조원 등 우리나라의 극지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한의 환경인 극지에서 활동하는 극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극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6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극지인의 밤’ 행사에는 1988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떠났던 제1차 월동대원부터 최근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제29차 세종기지 월동대원과 제3차 장보고기지 월동대원까지 약 100여 명의 대원이 참석한다. 또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승조원과 산·학·연 관계자, 올해 1월에 남극에서 안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약 150여명도 함께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준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극지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남·북극에 3개 과학기지(남극 세종과학기지·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최첨단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월동연구대원, 극지과학자, 아라온호 승조원 등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극지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결속력 제고를 위해 작년 2월 17일 '제1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을 개최하였으며,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매년 극지인들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1부 행사에서는 지난 6일(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부 관계자, 월동연구대원, 극지 과학자, 남북극 체험단 등 극지인들이 함께 극지 활동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여러 차례 월동에 참여하여 극지 연구에 크게 기여한 우수 대원과 남·북극 얼음 바다를 누비며 해양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승조원 중 11명을 선발하여 표창한다.

2부 행사에서는 행사현장과 남극 세종·장보고 과학기지, 아라온호 간 화상통화를 통해 현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극지 관련 퀴즈 및 간단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극지인들의 노고를 위로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기념사를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값진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모든 극지인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제2쇄빙연구선 건조 등 주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박병일 주무관(☎ 6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목적

- 우리나라 극지 진출 30년에 앞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월동대원 등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미래 극지 시대 선점의 추동력 확보
-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 2018.2.17,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15주년 : 2017.4.29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 (일시/장소) '17. 4. 26(수) 17:30~20:00 / 서울 세종문화회관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극지연구소
- (참석) 월동연구대원, 아라온호 승무원, 극지연구자, 국회의원 등 250여명
- * 정부 및 국회의원(20), 월동대원 및 아라온호 승무원(120), 극지 연구자(80), 남북극 체험단(10), 극지 관련 단체 및 언론인 등 기타(20) 등

□ 행사 주요내용

- (1부 : 극지 비전 선포식) 기념사 및 축사, 포상 및 감사패 수여, 비전 선포식, ‘극지연구 성과’ 영상 상영
- (2부 : 극지인 만남의 장) 만찬, 남극 세종·장보고과학기지, 아라온호 승무원 화상통화, 축하공연

구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1부 행사	17:30~17:35	5'	· 개회 선언 및 주요 내빈 소개	
	17:35~17:50	15'	· 포상 및 감사패 수여, 사진 촬영	
	17:50~18:10	20'	· 기념사 및 축사	
	18:10~18:20	10'	· ‘극지연구 성과’ 영상 상영	
	18:20~18:30	10'	· 비전 선포식	
2부 행사	18:30~19:50	70'	· 극지인 만남의 장 - (만찬) 식사 및 교류(25') - (화상통화) 남극 세종·장보고·아라온호(10') - (퀴즈) 극지 퀴즈 행사(5') - (축하공연) 행사 축하 공연 진행(30')	
	18:55~19:00	5'	· 폐식선언 및 정리	

참고 2

주요 월동대원 프로필

구분	사 진	성 명	월동 경력	주요사항
제1차 세종기지 월동대장		장순근	· 세종기지 제1, 4, 8, 14차, 월동대장	· 現 극지(연) 자문위원
제1차 장보고기지 월동대장		진동민	· 세종기지 제15차 총무 및 장보고 제1차 월동대장	· 前 극지(연) 국제협력실장 · 現 극지(연) 미래전략실장
아시아최초 여성 월동대장		안인영	· 세종기지 제28차 월동대장	· 前 극지(연) 선임연구본부장 (2010~2012) · 現 극지(연) 해양환경연구부 근무
국내 최초 여성 월동대원		이명주	· 세종기지 제10차 의료대원	· 現 평촌훼밀리의원(안양) 근무
최다 월동대원		김홍귀	· 세종기지 제13, 15, 17, 20, 25차 및 장보고 제1차 중장비대원	· 現 극지(연) 기지지원팀 근무
국내 최초 父子 월동대원		정희철	· 세종기지 제2, 7차 총무	· 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총무팀 근무
		정재우	· 세종기지 제26, 29차 통신대원	· 現 세종기지 29차 월동대 근무 (위성, 통신기기, 전자장비 운용 및 관리)
국내 최초 男妹 월동대원		이재일	· 세종기지 제30차 지질연구대원	·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철구	· 세종기지 제29차 의료대원	· 現 인천사랑병원 외과 과장

◇ Episode 1. 남극에서 설날 맞이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2015년 장보고과학기지에서의 설날은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여름기간으로 한국보다 4시간 빠르게 차례를 준비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 월동대원들은 모두 모여 한쪽에서는 부침개를 부치고 반대쪽에서는 떡매를 치며 분주하게 설음식을 한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떡국과 설음식을 먹으며 새해를 시작한 대원들은 일년 동안 안전하고 무사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으로 복귀 하길 기원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바쁘게 설날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모든 대원들은 식당에 모여 즐거운 윷놀이를 실시하였다. 4개 팀으로 나누어 직접 만든 커다란 윷으로 윷을 던지면서 모든 대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윷놀이를 즐겼다. 비록 한국에 있는 가족과 13,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맞이한 명절이었으나 대원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차례지내기>



<윷놀이>

◇ Episode 2. 남극 바라본 빛의 물결, 오로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장보고기지는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극의 겨울인 극야기간에는 맨눈으로도 오로라를 쉽게 관측할 수 있다. 반면 세종기지의 경우에는 자기 남극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소에는 오로라가 관측되지 않지만 지자기 활동이 강할 때에는 종종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 속에서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오로라도 실제 육안으로는 뿌연 안개나 희미한 커튼이 하늘에 걸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자기 활동이 강한 시기에는 월동대원들도 평생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에 잠시 일손을 놓고 감상에 젖기도 한다.



< 장보고과학기지 오로라 관측 사진 >

◇ Episode 3. 남극에서의 여가도 알차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차 월동연구대) 2014년 3월 중순, 장보고기지 건설을 위하여 하계시즌 동안 기지에 체류하였던 수백명의 건설인력이 철수하고 17명의 월동대원들만 기지에 남자 장보고기지가 썰렁해졌다.

기지설비와 각종 장비를 안정화시키고 정기보급품 정리를 위하여 모든 대원들이 분주한 일과를 보내는 한편,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대원들 간의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월동대원의 개인별 전문분야, 취미, 경험 등을 다른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남극대학’을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의 극지활동, 외국 기지현황 등 대원들이 월동근무를 하면서 궁금해 할만한 내용부터 시작하여 횃집에서 참치를 식별하는 방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기본상식 등 월동대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동계기간 중 야외활동이 어렵고, 신체활동이 부족해 질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실내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주로 탁구와 족구, 배드민턴을 하였는데, 매일 일과 후에는 몇몇 대원들끼리 헬스동호회를 만들어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월동 전 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남극을 떠난 대원들이 대다수였다.



<남극대학 강의모습>



<체력 증진 활동>

◇ Episode 4. 남극에서 펼쳐진 올림픽, 그리고 종합우승!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6차 월동연구대)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에서는 매년 남극의 동계기간 중 기지 간 친목을 도모하고, 혹한의 남극 겨울을 같이 이겨내는 동료애를 기념하기 위해 8개국이 참여하는 남극올림픽을 개최한다.

2003년 9월에도 긴 남극의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각국의 대원들이 모여 남극올림픽을 개최하였다. 기상악화로 참석하지 못한 폴란드와 브라질 기지를 제외하고 6개 국가의 대원들이 모여 배구, 농구, 탁구, 축구, 스키(크로스컨트리) 5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와 탁구 최강 중국을 제치고 2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스키와 배구종목까지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여 킹조지섬 남극올림픽에서 세종기지 건설 후 처음으로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 Episode 5. 우리 가슴속의 영원한 영웅, 故 전재규 대원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7차 월동연구대) 故 전재규 대원은 2003년 11월 남극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해상활동 중 실종된 동료 대원 3명을 구조하고자 뜨거운 동료애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구조대에 자원동참하여 구조작업을 수행하던 중 급격한 해상 변화로 인하여 구조보트가 전복됨에 따라 운명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하였으며, 의사자로 선정하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7일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포상 수여식



월동연구대원



행사 전체 사진

극지연구소

화상 통화 사진

